

지역 작가 250명 작품 한 곳에서 만난다

제8회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
오늘~28일 예총회관 안팎
야외조각전·달빛동맹 교류전
레지던시 작가 15명 기획전도
공연 부문은 10월 따로 진행

제8회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이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광주예총회관(아시아 창작스튜디오)에서 열린다.
 18일 광주예총에 따르면 그동안 야외행사로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전시분야의 참여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는 전시와 공연분야로 나눠 각각 7월과 10월 행사를 진행한다.
 7월 행사는 '같이&가치-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인이 더불어, 시민과 함께 우리의 문화를 창조해 가는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기획전이다. 오픈식은 오는 20일 오후 5시30분 광주예총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주예총 산하 미술·사진·건축가·문인협회 회원 250여 명이 참여한다. 회화·조각·공예·사진·시화·건축 등 약 300여 점의 작품이 백련 갤러리를 비롯한 예총회관 내 곳곳에 전시될 예정이다. 정월에는 조각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페스티벌 기간이 중에는 '레지던시

오픈 스튜디오' 기획전이 동시에 진행된다.
 '레지던시 오픈 스튜디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예총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레지던시 참여작가 15명의 창작 공간과 창작 과정, 작품 등을 볼 수 있다.
 광주예총은 또 광주와 대구의 민간예술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올해 3회째 진행하는 '달빛동맹 스케치 교류전'도 함께 개최한다. 이번 교류전을 위해 사진·문학·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광주와 대구 작가 약 70여 명이 지난달 22일~24일 여수 금오도를 방문, 야외 스케치 작업을 벌였다.
 오픈식은 오는 20일 오후 4시 광주예총 지호 갤러리에서 열리며 9월에는 대구에서 순회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조각가이자 광주예총 부회장이인 한갑수 씨는 "이번 기획전은 광주예총 회원 전역을 전시장소로 이용해 열릴 예정이다"며 "광주예총회관 1, 2, 3층 복도와 벽면 곳곳에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에는 야외조각전이 없다. 그래서 정월을 이용해 조각전도 열 계획"이라며 "많은 사람이 야외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조각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광주 천변에서 열린 야외공연은 오는 10월 '광주 프리지페스티벌'과 연계된 모습으로 5·18 민주광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문기자 ej621@kwangju.co.kr



박정용 'FROM THE HAND'



박진현의 문화카레

지난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대회의실에서는 매우 뜻깊은 토론의 장이 열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이 주최한 이날 이슈포럼은 지난 2월부터 광주시가 추진해 온 7대 문화권 수정계획연구 중간 보고회 자리였다. 7대 문화권은 광주를 7대 권역으로 나눠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현안이다.
 하지만,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4341억원 가운데 고작 1430억

인드를 더 필요로 하는 문화관광정책 핵심의 인사가 잦아 행정의 일관성을 떨어뜨린다는 데 있다.
 광주시 문화정책실은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신설된 조직이다.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컨트를 타워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문화부서 공무원들이 평균 6개월~1년 만에 교체되면서 슬한 문화전당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뒤로 가는 광주시 문화행정

원만 집행됐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관심으로 표류한 탓이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2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지역공약 개발을 위해 당시 김석웅 문화도시정책관(현 광주시 정책기획관)을 주축으로 지원포럼과 함께 7대 문화권 수정계획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난 2004년 기본계획 확정 이후 10여 년이 지나면서 '달라진' 지역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보고회에는 7대 문화권 수정계획 연구를 지휘해온 김정책관은 정작 불참했다. 지난 5일 단행된 광주시 인사에 따라 문화도시정책관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정책기획관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 문화도시정책실장과 관련분야 5급 공무원도 동시에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 사실상 광주시 문화라인이 대폭 물갈이된 셈이다.
 물론 공무원 인사는 승진 요인과 조직쇄신 등의 필요에 의해 단체장이 행사하는 고유권한이다. 문제는 다른 부서에 비해 전문성과 문화마

사실 문화전당은 지난 2015년 9월 개관 전후로 현 방선규 전당장 직무대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반면 비슷한 기간 문화정책실은 김일용, 엄방열을 거쳐 최근 임명된 정민근 실장까지 3명이 바뀌었다. 문화도시정책관 역시 마찬가지로, 근래 문화전당 공무원들 키우기 위해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인센티브까지 주는 다른 지자체와는 너무나 다르다. 오죽했으면 최근 '아시아문화전당 조성사업 정상화' 포럼에서 객석의 한 문화해설사가 토론자로 참석한 광주시 고위공무원을 향해 "너무나 자주 문화공무원이 바뀌어 안타깝다"고 했을까.

요즘 광주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문화수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세미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자율, 분권, 협치를 내세운 문 정부의 문화정책과 궤를 같이해 문화전당 정상화와 지역문화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협치파트너인 광주시는 '딴 세상'에 가 있는 듯 하다. 새로운 시대, 문화광주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다시 읽는 한국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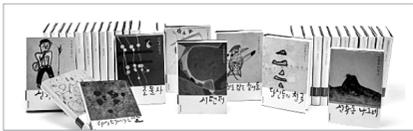
안도현 동화 '연어' 100만부 판매 돌파

시인 안도현(56)이 쓴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연어'가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랐다. 1996년 3월 출간 이후 21년 만이다.
 18일 문학동네에 따르면 '연어'는 최근 139쇄를 찍고 100만 부 판매를 넘어섰다. '연어'는 '은빛연어'가 동료들과 함께 모천으로 귀귀하는 과정에서 '누나연어'를 여리고 '눈맑은연어'와 사랑에 빠지며 성장해가는 이야기다.
 '연어'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운명을 지닌 문체에 담겨 평가와 함께 10여 개국에서 출간됐다. 영국의 한 매체는 '어린 왕자', '동물농장' 등과 함께 '세계 베스트 우화 톱 5'에 꼽기도 했다.
 문학동네는 100만 부 돌파를 기념한 특별 한정판을 1만 부 발행했다. 새로 표지를 입히고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번역, '맨 부커상'을 받았던 데버러 스미스가 번역한 영문판 'The Salmon Who Dared to Leap Higher'를 함께 수록했다. /연합뉴스



'퇴원'·'선학동 나그네'... 이청준 전집 34권 완간

장흥 출신 소설가 이청준(1939~2008)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다섯 달 전인 2008년 2월29일 작가의 경기도 용인 집에 후배들이 모였다. 문학평론가 이윤옥에 따르면 이 청준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나 내 자식이나 이왕이면 잘 꾸며서 한데 모아줄까' 부탁했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전집 발간 작업의 시작이었다.
 권오룡·김수영·우찬제·이윤옥·이인성·정과리·홍정선 등 7명으로 전집 간행위원회가 꾸려졌다.
 문학고지성사는 최근 15권 '선학동 나그네'와 16권 '다시 태어나는 말'을 펴내고 이청준 전집을 34권으로 완간했다. 장편소설과 중·단편집이 나란히 17권씩이다. 1965년 사상계 신인문학상 당선작인 '퇴원'부터 2007년 소설집에 수록된 '이상한 선물'까지 42년간 써낸 작품이 망라됐다. /연합뉴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블로그 기자단 모집

2017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SNS 홍보를 위한 블로그기자단을 모집한다.
 기자단은 2017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생생한 모습을 공식 블로그나 지원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 등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로 내·외국인 구분 없이 2017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관심이 있는 블로그 운영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서는 네이버 폼(http://naver.me/GR9DJKBq)에 등록된 서식을 간단히 작성, 오는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블로그 기사에는 원고료를 지급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특별 원고료도 준다.
 2017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9월8일부터 10월23일까지 46일간 '미래들(FUTURES)'을 주제로, 광주비엔날레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립미술관 등에서 열린다. 문의 062-611-517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최대 3500만원 지원 '문화예술협력사업' 이달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민간 후원자를 받아 추진하는 문화예술협력사업 지원은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2017년도 사업에 대한 2차 공모를 7월 중에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공공-민간단체 간 문화예술협력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총 사업비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으로,

사업비 50% 이상에 대한 민간 후원이 확보돼야 한다. 선정되면 나머지 사업비를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는 문화예술의 창작 재원을 기업과 민간 영역에서도 확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29개 사업을 지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농촌 · 어촌 · 산촌 三村에서 만나는 착한 농부

이연복

강레오

매주 금요일 밤 8시 20분

유쾌한 삼촌

착한 농부를 찾아서

CHANNEL A